

6. 신 발 류

갑오경장 이전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신분이나 빈부의 수준에 따라 각각 그 신발도 달랐기 때문이다.

짚으로 엮어 만든 짚신, 닥나무 껍질로 만든 닥가죽신, 삼(大麻草)껍질로 만든 삼신, 왕골로 만든 왕골신과 삼색 왕골신, 무명으로 만든 백무명신과 흑무명신, 청무명신, 짐승 가죽으로 만든 흑피(黑皮) 갖신과 백피(白皮) 갖신, 비단으로 만든 견단(絹緞)신과 금단(錦端)신 등이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짚에다 삼껍질을 섞거나 왕골에다 삼껍질을 섞어 만든 짚신도 유행했고, 또는 닥나무 껍질에다가 종이를 섞어 만든 짚신도 있었으며 오색으로 곱게 물들인 왕골 미투리와 갖가지 재료를 곱게 섞어 만든 집신류가 크게 유행되었다.

이들 짚신류 중에서도 황짚과 왕골로 곱게 삼은 짚신을 '미투리'라고 하는데 개화기 이후에 멋을 부리던 젊은 양반들이 갖신(가죽신)보다는 발이 편하고 맵시 좋은 미투리를 즐겨 신었다. 그리고 종이(한지)로 만든 지혜(紙鞋)라는 짚신도 있었다. 낡아서 버려야 할 고서(古書)를 이용하여 노끈을 꼬아 짚신 삼는 기법으로 신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고문헌(古文獻)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폐단이 생겨 국법으로 지혜 금지령(紙鞋禁止令)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종이로 만든 이 사치스러운 짚신은 구한국 말엽에 자취를 감추었다.

(1) 짚신과 미투리

짚으로 삼은 신을 짚신 또는 초혜(草鞋)·비구·망리(芒履)라고 부르며 삼(麻)으로 삼은 신을 미투리 또는 마혜(麻鞋)·승혜(繩鞋)라고 하였다.

짚신이나 미투리는 신들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다리를 뺀 자세에서 두 엄지발가락에 신날을 걸고 신날의 머리끝을 허리띠에 연결 시켜서 신을 삼는다. 농촌에서는 낮에 일하고 밤을 이용하여 호롱불 아래에서 새끼를 꼬아 다음날에 신을 가죽들의 짚신을 만들어야 했다.

(2) 태사신(太史鞋)

상류계급 남자의 마른신의 한 가지인데, 울을 비단 형겅이나 가죽으로 하고 코와 뒤에 흰 선문(線紋)을 새기어 놓았다. 신창에는 푸른 안가죽을 대었다. 일명 태사혜(太史鞋)라고도 하는데 태사는 옛날 중국에서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史官)이었다. 옛날에 태사(太史)가 신었던 신이라고 한다.

(3) 발막

마른 신의 일종인데, 발막신이라고도 한다. 상류 계급의 노인들이 신는데 뒤축과 코에 께맨 솔기가 없고 코 끈이 뾰족하지 아니하고 넓적하며 자축 조각을 대고 경분(輕粉)을 칠했다.

(4) 당혜

울이 깊고 작은 가죽신의 한가지인데, 앞과 뒤에 당초문(唐草紋)을 새긴 마른 신이다. 남녀가 다 신을 수 있다.

(5) 목화(木靴)

사모와 관대를 착용할 때에 신는 신발인데 검은 녹비(鹿皮: 사슴의 가죽)로 목이 길고 모양이 장화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겹은 검은 우단으로 하고 안은 희 융을 대었다. 밑창은 가죽으로 하고 솔기에는 붉은선을 둘렀다.

이 목화는 화자(靴子)라고도 부르며 조선시대의 벼슬아치들이나 또는 혼례식을 치르는 신랑이 사모와 관대를 갖추고 이 목화를 신었으며 국상(國喪)이 있을 때에는 백목화(白木靴)를 신었다.

(6) 나막신(木靴)

나무로 만든 신발인데, 목혜(木鞋)라고도 한다. 나막신은 굽이 높아 비 올 때는 좋으나 무겁고 활동적이지 못하여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 재료는 소나무나 오리나무를 사용했으며 남자용은 투박하게 깎았고 여자용은 여러 가지 무늬를 그리거나 코를 맵시 있게 파서 만들었다.

(7) 노파리

삼(麻)·종이·짚같은 것으로 끈 노로 결은 신인데, 겨울에 집안에서 신었다.